

여수엑스포 보러 가는길 남도 봄과 따뜻한 동행



경남 가천 다랭이마을

‘2012여수엑스포를 떠나는 1박 2일 가족여행’ 세계인의 축제 여수 엑스포의 열기가 뜨겁다. 축제의 도시 여수를 중심으로 한 흥겨운 여행 코스가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다. 한국관광공사 추천하는 엑스포 여행 코스로 봄여행을 떠나보자.

104개국 신비의 바다여행하며 “1박”

햇차 맛보고 남해바다 거닐며 “2일”

◇여수엑스포와 우리 흥 넘친다 (전주-익산-여수)

지난 12일 개막된 ‘2012여수세계박람회’는 오는 8월 12일까지 여수시 여수신항 일대에서 계속된다.

‘살아있는 바다, 숨쉬는 연안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바다를 통해 지구 생태계와 사람이 서로 어울려 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접할 수 있다.

거대한 파이프오르간 형태의 스카이다워, 뉴미디어 버라이어티쇼와 100여 개 참가국가의 문화공연 무대인 빅오(The BigO) 등 공간 곳곳의 볼거리도 다양하다.

대중교통을 이용해 여수를 오가는 길에 전라선 열차가 지나면 전주와 익산에도 들러보자.

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우리의 흥이 담긴 소리배우기, 태권도 공연, 다양한 모양의 부채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.

백제의 왕궁터로 알려진 익산왕궁리오층석탑 발굴현장에 들려 유적전시관을 살펴보고, 익산보석박물관의 오봉산일월도와 보석꽃을 만나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다.

◇그윽한 차·신나는 서커스 (하동-광양-여수)

하동에서 시작해 광양을 거쳐 여수에 닿는 코스는 그윽한 봄의 정취와 문화의 향기, 신나는 서커스를 즐길 수 있는 코스다. 국내 3대 차재배지인 하동 약양에 자리한 매암차문화박물관은 하동의 차를 맛보고 다원의 정취를 느끼기에 모자람이 없다.

매암차문화박물관의 차밭은 모두 2만 3000여㎡(7,000여 평). 1963년 고 강성호 용이 다원을 조성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됐다. 지금까지 농약을 단 한 번도 뿌리지 않고, 자연순환농법으로 차나무를 가꾸고 있다는 강동오 관장의 설명이다. 박물관에서는 차와 관련된 여러 유물을 살펴볼 수 있고 재다 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을 해 볼 수 있다. 약양 들뜬은 대화소설 ‘토지’의 무대로 잘 알려진 곳. 최참관댁은 길상이 거주하던 행랑채, 최희수의 기침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사랑채, 별당아씨가 머물던 연못 딸린 별당 등 소설의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다.

하동을 벗어나 여수 방면으로 길을 잡으면 곧 광양이다. 광양시는 여수엑스포에 맞춰 대규모 서커스쇼 ‘2012 광양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’을 선보인다. 세계 정상급의 아트서커스를 만나볼 수 있다.

◇청정 봄 바다·강변 성곽 (여수-남해-진주)

2012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남해, 진주로 가는 길은 맑은 봄빛이다.

바다에 기댄 마을과 강변 성곽이 따뜻한 동행이 된다. 봄의 향기는 남해 깊숙이 들어설수록 완연하다. 가천 다랭이 마을의 바다로 이어지는 계단식 밭 곳곳이 꽃으로 화사하게 단장됐다.

다랭이 마을길은 남해 바래길의 주요 코스가이기도 하다. 남해 끝자락의 미조항은 봄이 무르익으면 멀치잡이로 분주해진다.

5월 19-20일 이곳에서 멀치축제도 열린다. 미조항에서 시작되는 물미해안도로는 독일마을, 원예예술촌의 이국적인 풍취가 더해져 더욱 아름답다.

창선교아래 원시 멀치잡이인 죽방렴을 구경하며 숨을 고른 뒤 3번 국도를 내달리면 진주다. 남강변 진주성에는 우리나라 3대 누각인 ‘명품’ 축석루가 들어서 있다.

남강에 몸을 던진 논개의 아픈 사연과 함께 성곽길을 걸으며 1박 2일 나들이를 호젓하게 마무리하기에 좋다.

/김여울기자 wool@kwangju.co.kr



광양 월드아트 서커스페스티벌



하동 매암 차 박물관



진주 축석루

이태리가쿠 50% SAL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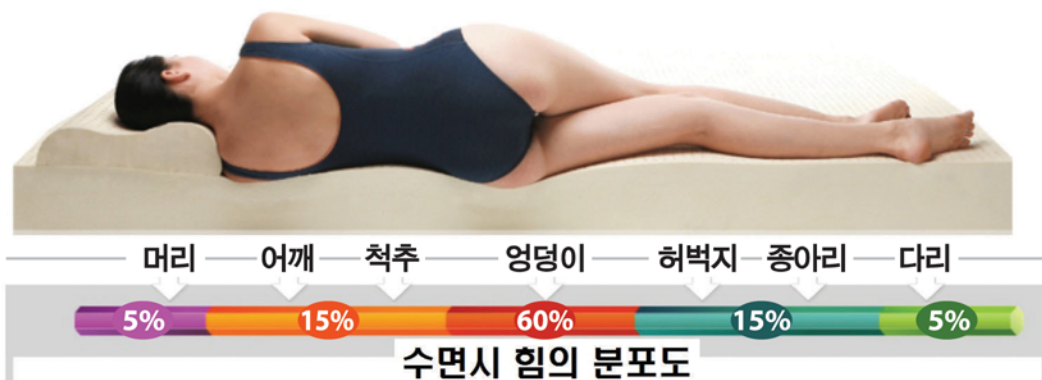
첫 파격세일 다음달 25일까지

소파, 식탁/좌탁, 라텍스 매트리스

쇼핑몰 www.hong79.com NAVER [홍스페이스](#) 검색

세계최고 수면과학 **던롭필로, 삼사, 라텍스 런칭기념**
(숙면을 원하시는 분 · 척추질환이 있으신분)

고객님의 매트리스는 아래와 같습니까?



라텍스, 소파, 식탁 신상품 입점
동구 장동 58-15 장동로터리 (구도청옆)

홍스페이스 ☎1899-0240

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: 제2006-1 극락전 남골당

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?

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

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!!

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

- **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**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, 떼가 벗겨진 묘,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,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 및 친족,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%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.
- **시신에도 해로운 매장**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.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,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.
- **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**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.

- 문빈정사



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

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) 228-0108, 010-5103-4004, 010-7179-0108